

꿈쩍 않던 우병우 이번엔 교체될까... '문고리 3인방'도 관심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박 대통령 내주 인적쇄신 예상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의 수습 조치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중에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7일 "빨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후임자 인선과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향을 먼저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린다면 내 주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청와대 참모진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단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

이원종 비서실장 퇴진 가능성

황교안 총리 교체 방안도 거론

측근 참모 4~5명 교체 될 듯

며, 여당으로부터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한다는 통보를 받아 제가 전달을 했다"며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해 곧바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예초 박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참모진과 내각에 떠넘기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서진 총사퇴'나 '전면 개각' 등의 정치권 요구를 부정

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남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전면 인적쇄신'을 요청받은 뒤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의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혀 생각이 변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여당 일각과 야권의 요구대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 참모들과 정부 각료를 전부 바꾼다면 심각한 국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별 교체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최순실 파문'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정국 운용에 부담이 되는 측근 참모 4~5명이 우선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대통령비서실의 수장인 이원종 비서실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실장 본인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씨에게 사전 유출된 일부 연설문과 동일 아이디를 쓰는 것으로 보도된 정호성 부속 비서관을 포함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당시 제2부속비서관)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야권으로부터 몇 달째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데다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로 여겨져 청와대 내부에서도 퇴진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중봉 정책조정수석의 경우에는 미르재단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교체를 검토

할 가능성이 크다.

내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교체해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황 총리는 지난해 6월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발탁된 이후 1년 4개월간 내각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황 총리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당 비주류 일각에선 '민심 수습용 카드'로 제시하고 있고 야당에선 황 총리를 포함한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거국 중립내각 제안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예상되는 교체 범위보다 큰 폭의 쇄신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블릿PC 속 이 얼굴은 누구?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독일 헤센주 한 호텔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 JTBC가 최순실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담겨 있는 최씨의 사진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한편 최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순실 "태블릿 PC 내 것 아냐...신경 쇠약 한국 들어갈 상황 아니다"

"당선 초기 연설문 잠깐 수정"

미르재단 등 모든 의혹 부인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언론과 첫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초기에 청와대 자료를 받아 본 것은 사실과 연설문을 일부 수정한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최씨는 나머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씨는 독일 헤센주 호

텔에서 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 수정과 관련, "대선 당시인지 그 전인가 했다. 대통령을 오래 봐 왔으니 마음을 잘 아니까 심정 표현을 도와 달라고 해서 도왔다. (박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니까 심정 고백에 대해 도움을 줬다. 국가 기밀 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보고서를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당선 직후 초기에는 이메일로 받아본 것 같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종이나 책자 형태의 청와대 보고서를 매일 봤다거나, 태블릿 PC를 통해 보고서를 사전에 봤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그 외 인사 개입설과 미르·K스포츠 재단 특혜 의혹, 차은택씨의 재단 운영 농단 의혹, '팔선녀' 비선모임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 계획에 대해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렸고, 심장이 안 좋아 진료받고 있어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딸이기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건강이 회복되면 용서를 구하고 죄가 있다면 받을 것은 받게 받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광주교육은 합심입니다

2016.10.31. (월) ~ 11.3. (목), 11.5. (토)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금남로 일원

개막식: 2016.10.31.(월) 14:00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

주요 정책성과 등 각종 전시 기간: 2016.10.31.(월) ~ 11.2.(수)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p>1일차 월 10.31</p> <p>개막식 14:00 학부동아리 축제 15:30 교원상담 15:30 법률자문, 각종 검사 16:30</p>	<p>2일차 화 11.1</p> <p>마을교육공동체 14:00 비전선포식 15:30 교원상담 15:30 법률자문, 각종 검사 16:00 희망교육 운영 사례 발표 16:00 참여형수업 공개 강좌 16:00</p>	<p>3일차 수 11.2</p> <p>새혁신관 14:00 호남권 포럼 15:00 대안교육 운영 사례 발표 15:00 2016시민교육위원회 18:00 대표포럼</p>	<p>4일차 목 11.3</p> <p>교원연구회 13:00 실천사례 발표대회 14:00 연구학교 운영 성과 보고회 14:00 명사 초청 특별 강좌 15:00</p>
--	--	--	--

주최·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거국중립내각 탄력 받나

새누리 비주류·야권 구성 요구 봇물

'최순실 파동'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여야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부겸 전 대표는 27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 리더십을 갖고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이 구성돼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현재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정도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헌정 중단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권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거국내각도 답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협치가 가능한 분을 총리로 여야가 함께 찾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거국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말한다. 실권은 총리가 행사하도록 하는 과도정부 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국방 등으로 제한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사건과 함께 정부와 당까지 패닉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국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당내 회의에서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거국내각 구성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를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은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 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새로운 내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짜지 말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각 분야대가들을 불러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 대통령 지지율 10%대 급락 42% "대통령 하야·탄핵해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1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21.2%를 기록, 전주에 비해 무려 7.3%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 비율은 73.1%로, 8.6%포인트나 급상승하며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섰다. 호남에서는 긍정 평가가 11.1%에 불과했다.

리얼미터는 "핵심 지지층인 60대 이상, 보수층,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새누리당 지지층의 이탈 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6일 일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

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17.5%에 그쳐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76%에 달했다. 또 24일 일간 조사는 28.7%, 25일은 22.7%를 보여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1%포인트 떨어진 26.5%에 그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0.5%로 1.3%포인트 상승하며 1.2위 자리를 바꾸었다. 국민의당은 1.4%포인트 오른 14.4%였다.

한편, 리얼미터가 따로 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 지난 26일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2.3%가 '하야 또는 탄핵'을 꼽았으며,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21.5%) ▲새누리당 탈당(17.8%) ▲대국민 사과(10.6%)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2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